



미국, 홍수 보험 동향

김성균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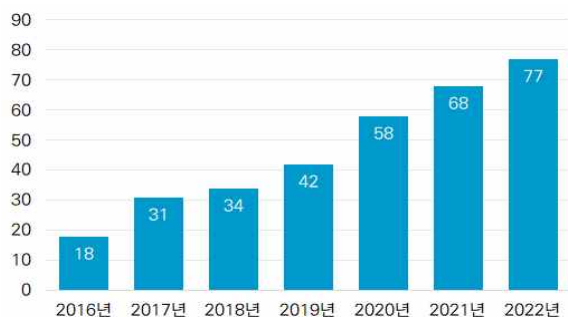
요약

과거 미국에서 홍수 피해 보장 담보는 주로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데이터 축적,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시장 내 민간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확대됨. NFIP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임에 따라, 재승인 시 연장되는 운영 지속 기간이 단기로 변경되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새로운 요율 체계(Risk Rating 2.0)를 단계적으로 도입함. NFIP 보험료 인상 전망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장 격차가 크다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과거 미국에서 홍수 피해 보장은 주로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데이터 축적, 분석법 향상, 모델링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홍수 보험 공급이 늘어났고(〈그림 1〉 참조), 이에 홍수 보험 시장 내 민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확대되었음(〈그림 2〉 참조)

- NFIP는 1968년 국가홍수보험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이 통과되면서 구축되었으며, 현재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함
 - 민간 보험의 이용가능성 부족 및 홍수로 인한 연방정부 재난지원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의회가 NFIP를 구축함
 - NFIP는 의회가 승인해 준 기간 동안 FEMA에 의해 운영되며, 기간 종료 전까지 재승인받는 경우 기간이 연장됨
- 2019년 연방 규제당국은 보험약관이 규제 정의를 준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기관이 민간 홍수 보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홍수 보험 시장은 24.3% 성장하였으며, 홍수 보험 시장 내 민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2.5%에서 32.0%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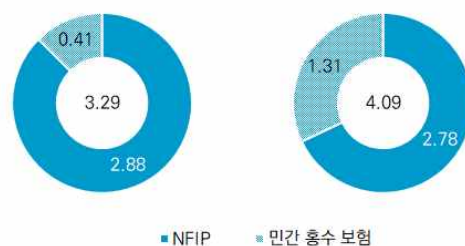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홍수 보험 취급 민간 보험회사 수
(단위: 개)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s(2023), "Flood: State of the Risk"

〈그림 2〉 홍수 보험 시장 내 원수보험료 규모 비교¹⁾
(단위: 십억 달러)

< 2016년 홍수 보험 원수보험료 > < 2022년 홍수 보험 원수보험료 >



주: 1) 원형 그래프 안의 수치는 각 연도 전체 홍수 보험 시장 원수보험료 규모임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s(2023), "Flood: State of the Risk"

- NFIP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임에 따라, 의회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NFIP 재승인 과정에서 연장해 주는 운영 지속 기간을 단기로 변경하였으며,¹⁾ FEMA는 새로운 요율 체계(Risk Rating 2.0)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 NFIP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재무부에 57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재무부에 대한 미결제 부채액은 205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임
 - FEMA는 허리케인이 다수 발생하던 2017년 재무부로부터 160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부채 탕감 및 미래 부채에 대한 이자 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²⁾
 - 2017년 말부터 의회는 NFIP 재승인 과정에서 연장해 주는 운영 지속 기간을 장기(5년)에서 단기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총 26번의 단기 재승인이 이루어짐
 - 최근 갱신은 올해 9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FEMA는 올해 11월 17일까지 NFIP를 운영할 수 있음
 - 의회의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① NFIP의 신계약과 갱신계약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②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4.2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감소하게 됨
 - 기존 요율은 주로 건물의 고도(高度)와 같은 부동산의 정적인 특성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산출된 반면, Risk Rating 2.0하에서는 홍수 빈도, 다양한 홍수 유형, 수원(水源)까지의 거리, 복구 비용과 같은 부동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며, 홍수 리스크를 더 잘 반영하는 보험료를 산출함
 - Risk Rating 2.0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NFIP 신계약에 적용되기 시작해, 2022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NFIP 갱신계약에 적용되었고, 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NFIP 계약에 적용 완료되었음³⁾
- Risk Rating 2.0 도입으로 인해 NFIP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NFIP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3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Risk Rating 2.0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689 달러였던 연간 보험료의 중앙값은 1,288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⁴⁾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는 NFIP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 기회를 인식하고 정제된 요율 산출 기술, 파라메트릭 보험과 같은 신상품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⁵⁾
- 한편, 미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약 90%가 홍수와 관련이 있음에도 홍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⁶⁾ 미국 내 홍수 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2023년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와 Munich Re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주택이 홍수 리스크에 처해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홍수 리스크에 처해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4%였으며, 자신의 주택이 홍수 리스크에 처해있다고 응답한 22% 응답자 중 78%만이 홍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

2) FEMA(2023), "Rising Interest Expenses"

3) FEMA(2023), "NFIP's Pricing Approach"

4) GAO(2023), "Flood Insurance: FEMA's New Rate-Setting Methodology Improves Actuarial Soundness but Highlights Need for Broader Program Reform"

5) III(2023), "Flood: State of the Risk"

6) III(2023), "ATTACKING THE RISK CRISIS: ROADMAP TO INVESTMENT IN FLOOD RESILIENCE"